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예비자 교리 교안 13 (2월 11일)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마리아

1. 성모님 관련 주요 교리(4대교리)

- ◆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 두 가지 본성이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독특한 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느님이시므로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분을 낳으신 분이로서 - **“천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다. - 431년 에페소공의회 - 콘스탄틴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테오도코스(천주의 어머니)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코스(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주장하다 파문당하여 경교라는 분파를 만듦(당나라, 원나라까지 전파->발해,신라 전파가능성)
- ◆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을 때에도, 낳은 후에도 항상 동정을 지키신 평생 동정녀 하느님의 인간구원역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권능과 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 **“평생 동정”** - 649년 라테란 공의회
- ◆ 동방 전통의 교부들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온전히 거룩한 이”(Panagia)라고 불렀으며,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이를테면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이시다.” 하고 찬미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 **“성모무염시태”** - 1854년 비오 9세 교황
- ◆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려졌으며, 그곳에서 이미 당신 아드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아드님의 신비체에 딸린 모든 지체들의 부활을 앞당겨 누렸다. - **“성모승천”** - 1950년 비오 12세 교황

2. 가톨릭교회에서의 성모마리아의 위치

- ◆ 성모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참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느님을 믿고(수태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피에타)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도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 ◆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한 사도들(십자가의 유언)의 뒤를 이어 가톨릭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모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서 공경합니다.

3. 왜 가톨릭교회는 성모마리아에게 기도하는가? (우상숭배?)

- ◆ 우리교회는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예에서 차이를 둔다 - 하느님에게는 흠숭 즉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를, 성모님에게는 상경(上敬)의 예를, 교회가 인정한 성인들에게는 공경의 예를 들인다. 즉 성모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인들 중에 으뜸으로서, 인간들 중에 으뜸으로서의 예를 올리는 것이다.
- ◆ 은총의 중재자 -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공로에 의해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을 얻어 주실 수 있는 중재자시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비록 성모님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어 내실 수 없지만, 실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하는 은총은 성모님의 손을 거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믿음으로서, 성모님의 공로가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p>환희의 신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p>빛의 신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니다. ◆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니다. ◆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
<p>고통의 신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니다. ◆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p>영광의 신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니다. ◆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